

祝 辭

김 진 영

서울의대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大韓耳鼻咽喉科學會의 여러 支部 가운데 釜山·慶南支部에서 제일 먼저 支部會誌를 創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더욱이 會員의 數로나 財政面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서울의 中央支部보다 한발 앞서 會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敬意를 表하며 이를 계기로 各支部에서도 자극을 받아 支部會誌의 發刊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釜山·慶南支部會는 創立當時부터 釜山大學校 醫科大學을 中心으로 釜山市와 慶南一圓의 綜合病院과 開院醫들이 積極的으로 參與해서 어느 支部보다도 活潑하게 支部會를 發展시켜 왔습니다. 每月 支部會를 開催하여 學術發表와 討論등은 勿論 會員間의 親睦活動을 하여 왔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이제 高神醫大를 비롯해서 여러 醫大가 탄생하고 支部會活動에 加勢하였으니 더욱더 發展하리라고 믿고 期待하는 바 큼니다.

이제 大韓耳鼻咽喉科學會의 正會員도 1,000名을 넘어섰고 1년에 100余名の 專門醫가 배출되고 있는 큰 學會로 發展되었습니다. 따라서 學會誌만으로는 會員들의 論文을 제때에 다 掲載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던 차에 이와 같이 훌륭한 支部會誌가 發刊되게 된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고 多幸스럽게 生覺합니다. 이 會誌가 앞으로 그 內容을 充實히 다지고 發刊回數를 늘리며 그 發刊部數도 增加시켜서 會員들의 많은 論文과 글을 發表함으로써 서로의 知識交換과 親睦의 架橋役割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支部學術集談會에서 發表되는 演題는 勿論 支部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消息을 우리 耳鼻咽喉科學會의 全會員들에게 소개될 수 있고 支部의 充實한 代辯誌로서의 面貌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한번 支部會誌의 創刊을 充心으로 祝賀드리며 釜山·慶南支部會長님을 비롯한 任員여러 분과 創刊을 위해서 많은 努力을 아끼지 아니하신 編輯委員들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會誌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